

R&D특구 광주, 투자비 뒷걸음

연구비 173억 감소 6728억원... 7대 도시중 꼴찌

연구원 56명 늘어... 전남 5640억 불과 전국 14위

광주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난해 오히려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R&D투자비는 7대 대도시 중 꼴찌,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무늬만 R&D특구지 알맹이는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6728억원으로 전년도 6901억원보다 2.5%(173억원) 감소했다. 연구원 수는 7128명으로 전년도보다 56명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광주와 대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구 지정 이후 광주는 투자비가 전년보다 173억원(2.5%) 줄

었다. 전국적으로 1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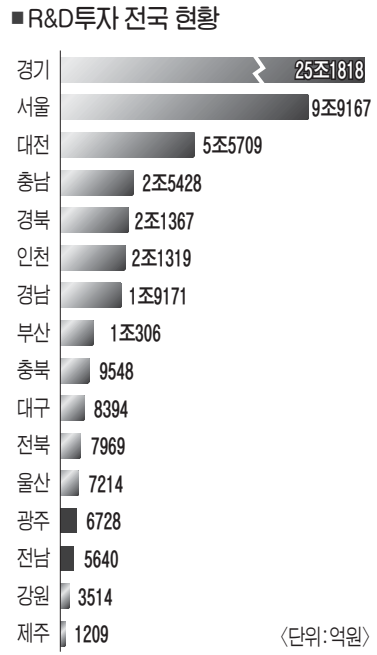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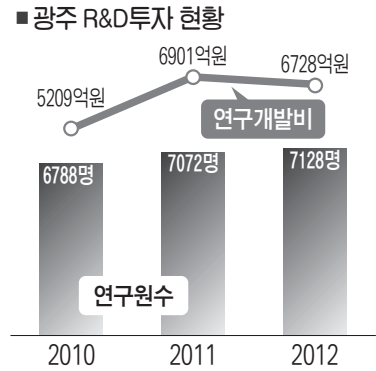
전남의 R&D 투자비는 광주보다 더 적은 5640억원으로 전국 14위다. 연구원 수도 3838명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꼴찌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1.1%(5조5597억원) 증가한 55조4501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를 달러로 환산(OECD 통계 적용)하면 492억2500만달러로 세계 6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번 조사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3만6715개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순위는 OECD가 지난 6월 집계한 수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각 국가의 2012년 조사결과가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

재원별로는 정부·공공부문에서 13



조8221억원(24.9%), 민간에서 41조4378억원(74.7%), 외국에서 1902억원(0.3%)을 투입했다.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43조2229억원(77.9%)을 사용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이 6조9503억원(12.5%), 대학이 5조2769억원(9.5%)을 사용했다.

기업 중에서 대기업은 32조709억원, 중소기업은 5조8132억원, 벤처기업은 5조338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연구원 수는 40만1724명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12.4명으로 일본·미국·프랑스·영국 등보다 높다.

기업이 27만5986명(68.7%), 대학이 9만6916명(24.1%), 공공연구기관이 2만8822명(7.2%)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단체별로는 기초분야에 10조1533억원(18.3%), 응용분야에 10조5727억원(19.1%), 개발분야에 34조7242억원(62.6%) 사용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 올레마켓 이용하고 유럽여행 떠나요”

KT는 올 한해 올레마켓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럽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올레마켓 연말감사 이벤트’(market.olleh.com)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KT 제공>

스마트폰 하루 평균 66분 이용

KISDI, 작년비 43% 증가... PC 추월

한국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데스크톱 PC 이용 시간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지난해 46분에서 올해 66분으로 약 4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루 평균 데스크톱 PC 이용 시간은 지난해 61분에서 올해 55분으로 감소했다. 이용 시간이 가장 긴 매체는 가정용 TV로, 하루평균 이용 시간은 지난해 183분에서 올해 185분으로 늘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미디어와 ‘동시에’ 사용되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부수적으로 이용한 시간은 14분,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간은 7분으로 조사됐다.

김민철 KISDI ICT통계센터장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용하기 쉽다는 스마트폰의 강점을 대체할 만한 미디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스마트폰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ISDI는 4432가구 1만319명이 참여한 2012 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 4386가구 1만464명이 참여한 2013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아이패드 에어·미니 오늘부터 예약 가입 SKT·KT

KT와 SK텔레콤은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의 예약가입을 12일 0시(11일 자정)부터 받는다

제품 출고가는 아이패드 에어가 용량에 따라 74만3000~109만1000원이고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는 64만2000~98만2000원이다.

KT는 예약가입 고객에게 12만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아이패드 스마트커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예약가입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스마트커버 상품을 주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스키 시즌권 1매를 증정한다.



아이패드 에어(왼쪽)와 아이패드 미니.

20개 공공기관 내년 R&D투자 1조6300억

한국전력공사는 2816억

한국전력기술 587억

한전KDN 14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255억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내년엔 1조63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전 등 20개 공공기관에 이같은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583억원 늘어난 규모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는 한국전력공사는 2816억원, 한국전력기술 587억원, 한전KDN 149억원, 한국농어촌공사 255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고했다.

미래부는 순이익 감소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른 부채 축소를 위

한 긴축 경영 등을 반영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올해 실적보다 0.27%포인트 낮은 3.02%를 권고했다.

20개 공공기관의 올해 R&D 투자액은 1조571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의 3.29%로 정부 권고치 수준이다. 20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정부의 권고 이상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권고치보다 30% 이상 확대한 매출액의 2.64%(975억원)를 투자해 권고달성률이 가장 높았다.

한진원자력연료(주)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452억원을 투자해 최대 규모였고, 이어 한전 304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838억원 순으로 투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KBS TV수신료 2500원→4000원 인상

KBS TV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1500원 올려 월 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의결에는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이 7명만이 참석해 처리했다.

KBS는 당초 내년 1월 4800원으로 올리는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다시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야당 이사가 빠진 상황에서 한번에 2배가량 올린 국민적 반발이 따른다는 이유로 1500원 인상으로 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기준 수신료 납부TV 수

수는 2034만대다. 따라서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연간 3661억 2000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KBS 광고 수입 6236억원의 59% 수준이다. 계산상으로는 3661억원의 광고를 줄일 수 있지만, KBS가 줄일 광고 폭은 2000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고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이 KBS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낸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K플래닛,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

SK플래닛이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SK플래닛은 희망앱 아카데미를 통해 45개 앱을 상용화하고 상생혁신센터 등을 운영하며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했다. 또 T아카데미를 통해 4만5000여명의 모바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4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창업

했다. 국무총리상은 폐쇄형(Private)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개척한 바이썬씨(VCNC), 인터넷 교육산업 성장에 기여한 시공교육, 초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기술 기반의 포토에디터를 개발한 켈리비스, 국내 앱 개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 앱센터운등분부가 수상했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금매 1억 7,500만원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코너, 양동/하천쪽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금매 1억 5,000만원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금매 6,100만원

⇒주인직매함

H.010-4667-9300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실전사례 중심교육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현경매 H.010-3605-5000